



사노피 파스퇴르(주),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신임 대표이사 임명

-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 레지스 로네 전임 대표, 본사 소아백신 글로벌 프랜차이즈 총괄로 영전

서울, 2017년 7월 26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지난 1일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 클라랑스 신임 대표는 2006년 사노피 파스퇴르에 입사, 본사인 프랑스 리옹(Lyon)에서 기업 전반의 마케팅·영업 간 효율성 제고 업무를 담당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웠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전역의 운영지원(Business Operation)을 관장하다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3국의 대표를 거쳤다.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신임 대표는 “1989년부터 사노피 파스퇴르가 기여해 온 한국에서 총 책임자로 임명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임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가정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사노피 파스퇴르(주)를 이끌었던 레지스 로네(Regis Launay) 대표이사는 프랑스 리옹(Lyon)에 위치한 사노피 파스퇴르 본사로 자리를 옮겨, 소아 백신 (Pediatric and Booster Vaccine Range)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총괄한다. 로네 대표는 2014년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이사로 부임 후 지난 3년간 일본뇌염 생백신 이모젠펙(Imojev), 수막구균 백신 메낙트라(Menactra), 5가 혼합백신 펜탁심(Pentaxim) 등을 발매했다. 또한, 노숙인과 도서벽지아동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사회책임활동인 ‘헬핑핸즈(Helping Hands)’에 매진해 왔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110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전문 기업으로, 20여 개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백신을 매년 10억 도스 이상 생산·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SK 케미칼과 혁신적인 폐렴구균 단백질접합백신(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제품의 공동 개발을 목표로 전략적 제휴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 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국내 백신 시장의 주요 백신 공급원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DTaP-IPV 콤보백신, Hib 백신, 수막구균 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 간염 백신, 황열 백신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당뇨순환기사업부 (DCV), 전문의약품 사업부 (GEM),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 (사노피 젠자임),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CHC) 등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노피(Sanofi) 그룹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사업 부문으로, 매년 백신 제품 10억 도스 이상을 제공해, 이를 통해 전세계 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예방접종을 제공받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서 20개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폭넓은 백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전문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난 한 세기 이상 백신 개발을 통해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지켜오고 있으며, 하루 100만 유로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1997년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 백신 시장의 주요 백신 공급원이다.